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고현명 부장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 6: 9-10)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피: <u>hkb.church</u>

지난주설교요약

오늘 본문 27 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의 합당한 삶" (빌립보서 1:27-30)

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첫째, 하나됨과 함께 함에 힘쓰는 삶입니다. 성경에 27 절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됨과 함께 함에 힘쓰는 삶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습니까?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로 개인주의가 만연되어서 내 신앙만, 내 편함만, 내 원함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은사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내 고집, 내 성향,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 되어 함께 하는 신앙이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진정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절대 개인적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점점 함께 하는 테두리가, 섬김과 용납과 배려하고 포용하는 모습이 더 넓어짐으로 더욱 함께 사랑하고 하나되는 삶이 됩니다. 복음의 합당한 삶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29 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믿음에는 구원의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 또한 져야 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하라 하신 일, 지키라고 하신 명령, 주님이 지고 가라고 하신 십자가를 "나는 하기 싫습니다"라고 내 던지면 고난이 없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30 절에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개역성경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삶, 복음을 전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힘 주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1.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시) 를 실시간
-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새벽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 3. 주일 예배 점심 -주일 예배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 마무리 정리를 위한 자원자를 받습니다.
- 계시판에 원하시는 주일에 이름을 올려 주십시오. 4. 성찬식 -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5. 생명의 삶 오늘 오후부터 생명의 삶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 6. 성경통독 성경 통독을 위한 카톡방을 엽니다. 원하시는
- 7. **창립기념 & 은퇴식** 9월 12일 주일은 창립기념 예배와 고현명 안수집사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분들은 교육부장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9/05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대표기도	고현명	조현숙	유영민	심영민
헌화성도	조현숙	윤완선	유경주	김현옥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9/12

9/19

9/26

예배출석자 및 헌금			
	주일예배		
에베 처ᅱ	주일학교		
예배 출석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1,282	2.00	

시난수 언금통계		\$ 1,282.00		
행사 및 모임				
6-8 월	야외예배	날짜미정 (주일)		

9 월 9월 12일 (주일) 교회창립 기념예배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샬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	가정에서 돌아	·가디	며 모이는 것을 운	^일 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기	나	510. 909-8612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여	유영민/유경애		정주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	이진수/이은진		장침	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나순	나순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	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호	510. 915-5578	K 선.	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	수	510. 468-4720	김	정림 (탄자니아)	
샬롬목장	조현숙/조정	욱	510. 396-6952	조형	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셩경공부-12 주		12 주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마태복음 10:16 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성도는 착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 처럼 순결하되 뱀 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워야 할 중의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공동체에 적용되는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이것을 적용하여 외적이 침범해 올 때에 싸우기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형제도도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도, 반대하는 입장에도 성경을 근거로 변론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개인의 사욕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사형시키라는 명령도 십계명과 더불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둘기 같은 순결과 뱀 같은 지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들은 그 악한 세상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틈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삶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분열되고 파괴됩니다.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실천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당할 수 있어야 하고 속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속아주는 것과 진짜 속는 것은 다릅니다. 알면서 속아주는 것은 순결한 것이고 진짜 속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오전 10 시 30 분 주일대예배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영어예배

수요일오후 7시 30분

주일오후 1시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510-872-2212

510-415-1696

안수집사: 고현명, 윤완선

유년부실

Paul.lee@gpmail.org

ejoysong@gmail.com

본당

Youth: Paul & Lena

어린이교회: 이은진

주일성경공부

수요기도회

교회약도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샬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